

## 다산포럼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설날 떡국 밥상에서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듣는다. 나이 먹기 의미가 새삼 다가온다. 성장기를 넘어서면 누구나 노화 여정에 들어선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도 나이 먹기 거부를 뜻하는 '안티에이징' 상흔이 넘쳐난다.

젊어지기 찬가를 부르는, 거꾸로 나이 먹기 주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노인의 고뇌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환갑잔치를 사라지게 한 수명 연장을 축복받은 아닌 빈부격차 문제로 아프게 터져 나오다.

청마해 설날, 맘백의 노인 독거사 소식이 들려온다. 자녀가 있어도 폐지를 주우며, 훌로 살아온 노인의 아픈 삶이 뉴스로 뜬다.

지난해 10월 어느 날, 트렌치코트에 영자신문 둥치를 들고 노숙하다 세상을 떠난 노인의 소식도 오버랩된다.

특이한 행색으로 한국 청춘들에게 '맥도날드 할머니'로 불렸지만, 유일한 친구는 외국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달구는 뉴스로 떠올랐다. 젊어 메마른 사회에서 외국인의 젊이 부각된 것일까?

빈곤한 노숙자가 아니어도 한국의 노인들은 머물 곳이 없어 해외뉴스거리로 뜬다. 이를테면 지난 1월 중순, 뉴욕 한인타운에 위치한 헨버거 매장에서 한인 노인들이 경찰에게 쫓겨나는 소동극이 벌어졌다. 커피값도 저렴하고 앉아있기도 좋아 노인들이 사랑방처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인사회에서 인종, 노인차별 항의했고, 결국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로 일단락지었다. 오래 매장에 머무는 한인 노인들을 쫓아내려고 경찰을 출동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발표됐다.

노인들이 머물 곳이 없어 고단한 것은 한국 안이건, 밖이건 깊은 끝이다. 아이도, 노인도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족 해결주의는 능경 중심 대가족제가 해체되어도

여전히 현재를 사는 한국인의 생활 습속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개봉한 한국영화에서도 가족 해결주의를 둘러싼 고뇌가 가득 묻어나온다. 자전적 다큐멘터리 '마이 플레이스'(박문칠)는 미혼모 동생의 존재를 계기로 가족이란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따로 자신의 자리를 모색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중심에 혼신하는 웃세대, 또 다른 가족을 가지 치는 결혼 중심주의를 벗어난 자녀 세대의 갈등과 차이가 담담하게 표현된다.

자식들 용돈으로 살아가는 노부부와 2남 1녀의 삶을 응시하는 '만찬'(김동현)에서는 가족을 지키려고 만신창이가 돼가는 장남의 책임과 아픔이 진하게 배어 나온다.

이혼과 실직으로 역경에 처한 자녀세대, 대리운전을 하다가 우발적인 살인사건에 말려들어도 형제간의 우애로 풀어나가려는 가족 내 비밀과 거짓말.., 식구끼리 오붓하게 밥상을 나누는 제목 '만찬'은 회고적 이미지에 집착하는 현실적 아픔의 반야법처럼 보인다.

그런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 공동체문화가 밭아하기를, 복지를 내건 나라에서 희망한다.

계, 2월 1일). 이런 수치는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새해 특집 TV다큐 '늙어가는 지구'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선진국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50년에는 22%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코엔 형제)가 노인 보양관의 무역협회를 보여주듯이, 이미 세상은 노인을 위하여 않는다. 유럽에선 더싼 나라에 가서 섬김을 받는 양로이민 전략도 성행하고 있다.

빈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가족이 해체된 시대를 살면서, 그 시절 형성된 가족중심주의를 넘어선 노인 중심 공동체 창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큐멘터리 '록큰롤 인생'(스티븐 워커)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자유롭고 즐겁게 살기, 혈연가족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노인의 지혜와 배움을 나누는 인생길 가기, 아랫세대에게 봉사하고 같은 세대끼리 우애를 즐기기 등.

그런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 공동체문화가 밭아하기를, 복지를 내건 나라에서 희망한다.

## 양동옥의 S 스토리

## 성적 인격의 나무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학생들에게 '나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정리해보자는 제안은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수업을 통해 섹슈얼리티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한 상태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하니ச 검토해 나가는 동안 한 학생이 작성한 기법할만한 보고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학생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보고서 주제에 관해 떠히 쓸 내용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수업을 받았던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지금까지의 성 경험에 관해 좀 더 현실감 있게 쓴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키스해 본 경험에 전부였던 그는 키스 경험을 쓰는 것이 다른 학생의 글과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강행하게 된다. 보고서에 접수에 대한 강한 의의!

단지 보고서를 위해서였는지, 보고서를 평가로 더 깊은 관계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물 만의 공간으로 향한다. 다행히 이성을 찾은 여자친구의 만류로 두 사람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모험은 큰 탈없이 끝을 냈다. 이것이 그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소

스라지게 놀랐던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 없다.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뿌리내릴 두 남녀의 마음과 몸의 결합이, 그들이 잘못 이해한 섹슈얼리티 보고서를 위해 일회성 육체적 성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으니 말이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영문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모두 성(性)으로 쓰고 있다. 물론 섹스는 생물학적 성, 젠더는 후천적 성으로 이해하지만, 섹슈얼리티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어렵다.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존재로서 성을 전제적으로 이루는 전성(全性) 또는 범성(凡性)의 의미에 가깝다. 즉 유체적 쾌락이나 성적 유흥의 차원의 성을 넘어서, 성적인 존재로서 의미와 정체성, 성에 대한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그리고 신념 등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한자어 성(性)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으로 태어나서(生, 날 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心, 마음 심)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성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 뜻,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성은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인격(sexual personality)인 셈이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인격이라 하고 우리는 인격이 높은 사람을 우러러본다. 마찬가지로 성에도 인격이 있으며 성적 인격이 높은 사람은 성을 건강하게 표현할 힘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성적 인격의 나무를 한그루씩 키워나간다.

가장 먼저 성적인 존재, 성적 성숙, 성적 호기심, 성적 욕망, 성적 표현 욕구라는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성적 인격의 성장 과정에서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성적 인격의 나무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은 고농축의 영양분을 주게 되면, 두 사람의 친밀감, 교감, 배려, 책임감의 열매를 맺는다. 더불어 성적인 존재로서의 의미와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잘 익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성적 호기심, 성적 욕망, 성 충동 등과 같은 열매만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면 성적 인격의 열매는 벌레를 먹어 땅에 떨어져 쪘게 된다. 결국, 성적 인격의 나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맹활약 하는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중독과 같은 열매로 기득하게 된다. 성적 인격의 나무에 어떤 열매를 키워나갈 것인가는 여려분이 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성이란 단어에 어떤 생각이나 심상이 떠오르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 기고

## 세계화 추구하는 문화전당, 지역에도 기여해야 한다

박운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성'이 국가정책의 키워드로 꾀하면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성장 엔진은 바로 사람인 것이다. 미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예술경영 지원센터의 'Project Via', 차세대 예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YAF'의 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예술과 기업의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문화·인재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유통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생산자인 창작자가 가장 중요하다. 콘텐츠 산업은 차별성과 창의성이 핵심이다. 탁월한 창의성과 재능을 가진 인력만이 21세기 문화전쟁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인 열린 사고와 유연성을 겸비한 엘리트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문화산업 관련학과가 9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산업계는 전문성 있는 인재의 부족을 아쉬워하

고 있다. 우리 광주의 사정은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월 완공을 하면 이제 광주는 아시아문화의 허브이자 문화발전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거대한 전당과 콘텐츠를 힘차게 가동시킬 엔진은 바로 사람이다. 과연 우리 지역에선 이러한 엔진을 얼마나 틈틈하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역예술계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할 전문 인력 채용 시 우리 지역 인재에게 우선권을 보장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사실 우리 지역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짐과 함께 광주에 가져올 많은 기대 이익을 꿈꾸고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이 광주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생산하고, 유통 시킴으로써 도시가 재생되고, 브랜드를 갖게 되길 꿈꾸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성화를 통해 과급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치가 높다.

연간 1100억 달러를 넘는 수출로 세계 콘

텐츠 산업의 42%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교육과 현장이 연계된 제작·실무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사람이 그 원동력임을 짚고다면 향후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교육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프로젝트형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광주문화재단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육성사업단(LINC사업단)이 문화 인재 양성 및 양성 후 활동지원을 위해 업무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지역의 문화인재양성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 대학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 맞춤형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초등교육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문화현장의 접근성을 높여서 광주가 문화인재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실력 광주의 명성을 이제 문화에서 빛내야 할 때이다.

이 여성은 결국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입양 절차는 어떤지 등에 관해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신통치 못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러나 이 아빠를 찾을 수 없거나 찾더라도 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양육비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미혼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두려움과 절망, 외면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다. 요

## 社說

## 안전불감증이 키운 여수앞바다 기름 재앙

여수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유출량이 GS칼텍스가 처음 주장한 것보다 20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조선 우이산호가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애 7노트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이야기다.

여수해경의 중간 수사발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서 2명이 탑승해 원유부두로 접안을 시도 하던 중 안전속도를 넘어 마치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하역시설로 돌진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충돌로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훈합물 등 164㎘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이 추정한 원유 유출량은 200㎘ 들이 820㎘로 이는 원유 8으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에서 주장한 800㎘의 205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수시와 해경이 방제작업에

여러움을 겪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GS칼텍스가 해당초 유출량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방제작업의 규모나 대처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초동방제를 방해한 채사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보니 피해지역이 확산일로에 있다. 기름띠가 광양을 넘어 경남 남해에까지 번지고 있다. 19년 전 씨프린스호 악동이 재현되고 있다.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허위 보고와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키운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 파괴는 후손에게 죄를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감독관청도 관리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총력 방제와 더불어 기름 유출사고에 반복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 및 위기관리대책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

오히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단체 대표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지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박승준 보훈처장은 광주시의 면담 요청에도 번번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넣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달 중순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이 무산된다면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정부와 5·18 단체 회원들이 별도의 기념식을 치르는 '만족 행사'는 불가피해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33년간 주제 회원 2명 등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념곡 지정 기준과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이달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달 5·18 단체와 애국단 체총협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주진하겠다고 계획도 허지부진한 상태다.

## 無等鼓

1995년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에 접어들 즈음 제3회 태풍 '페이'(FAYE)가 남해안을 강타했다.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해 1959년 '사단'(SARAH)에 이어 두번째로 강력한 태풍이었다.

직접 영향권에 든 여수시내는 비비람이 몰아치며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오동도 상가에서 나오던 승강차가 방파제를 지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 16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작 큰 피해는 유품이 아닌 먼바다에서 터졌다. 태풍을

피하려던 원유 운송선 씨프린스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남부 소리도(연도) 해상에서 좌초하는 바람에 신고되었던 원유와 뱅크C유가 대량 유출된 것이다.

씨프린스호를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반도를 오염시켰던 허베이호 등 유조선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는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수차례의 사고 후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탓에 여전히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필자는 방제작업을 위해 출동하는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해역 인근 안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 미혼모 절망에 빠지지 않게 적극 보호대책 마련해야

일전에 자원봉사를 나갔던 싱글맘 보호소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스물한 살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는 연락이 끊겨버렸고, 재혼한 어